

1.종교다원주의 배경
1.동성애 반대
1.차별금지법 반대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54호
8월 29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 호소문 발표

대면예배 금지 조치 철회되어야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교단협,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시군구 기독교연합 등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래진 목사)을 비롯 한국기독교교단협 등 기독교연합체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시군구 기독교연합' 등 각 단체들이 대면 예배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8월 21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교회와 정부에 호소드린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지난 18일 정부가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자 하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전제하고 "한국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방역에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해당 교회들은 방역 당국에 적극 협력해 더 이상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내 모든 교회에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는 철회하기 바란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호흡이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통로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중단하라는 것은 교회들이 겨우 숨 쉰고 있는 산소호

흡기를 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대면 예배, 즉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건과 처지의 교회가 부지기수이며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무조건 대면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이자, 몇몇 교회 사례들을 전체 한국교회에 전가하는 징벌적 조치와 다름없다. 한 식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모든 식당을 폐쇄할 수 있는가"라며 교회에만 내리진 대면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이무리 코로나19로 인해 엄중한 상황이라도 비대면 예배, 즉 영상 예배를 드릴 처지와 여건이 안 되는 교회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독선이요, 이를 수용한 교회기관은 오만이며 다른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배려해, 모두가 함께해야 이 어려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다. 기독교회의 예배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이유이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공권력에 의해 기독교회의 예배가 침해받는다면, 이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악법을 만들어 사자굴에 집어넣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소속 교단과 신하 교회에 방역 당국의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다

시는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대면예배와 비대면 예배 방식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침해받지 않도록 자제를 모야갈 것이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지도자와 모든 정치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1.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내 모든 교회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조치를 철회하라.
2. 한국교회는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3. 한국교회 대표로서 정부와 협의한 지도자들은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정부에 대면예배 금지 철회를 요청하라.

2020년 8월 21일

(사)한국교회연합 소속 37개 교단 및 15개 단체, 전국17광역시도 226시군구기독교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신교단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세계기독교총연합회,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



조용목 목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시 139:17,18)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자기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급선무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셨습니다. 그 지으신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구원과 죽음 후의 세계와 역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풍성하고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을 좇아 행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며,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 장차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자신이 생각한 바와 다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다양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고 열심과 정성을 다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답과 아비람이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채우려는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부헌하였었습니다.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반제단의 불이나 다른 불이나 불의 성능은 마찬가지로 여겨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례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지손이 궤의 고리에 꿰어져 있는 채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고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례를 위반하는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자 옷자가 법궤에 손을 대어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치시므로 옷자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선한 의도라도 무지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인간의 종교행위가 무상송배가 됩니다. 그 종교의 역사성과 인문문화에 미친 영향과 교리의 윤리성과 정당한 의식 그리고 많은 신도 수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생각을 역행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상송배 행위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을 부정(否定)하면 사탄의 사주(使囑)를 받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미움소서...”라고 만류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하면 지렛 사탄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과 상반된 생각은 가차 없이 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고방식이 탁월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생활에 조화하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성명서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기독교정신을 창학 이념으로 삼고 미래의 세계적 인재들을 교육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우리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교총장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이 기독교정신 훼손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촉구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

우리는 그동안 평화, 사랑, 평등, 인권, 차별금지 등 같은 보편적 가치를 내포한 미명(美名)과 언어 상상의 조작으로 그 속에 반인륜적인 내용과 사상을 담아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을 안타깝게 지켜보았다. 동성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따뜻하게 품으면서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반인륜적인 시도도 있었다. 이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름답게 포장된 명칭과 달리 이 법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 이 법의 내면에 숨어있는 불평등, 차별, 비윤리, 억압의 내용은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사회를 분열과 타락으로 점철(點綴)되게 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흔히 신앙의 자유를 일컫는 ‘종교의 자유’ 보장이 아니라 반(反) 신앙을 강요하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법이다. 차별 해소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의 취향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 법 제정 취지의 표면적 선전과 달리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면서 법의 통제 속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이념화하며,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난민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금지법,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런데도, 마치 이 모든 법률들을 포괄하는 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양한 개인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국가주의나 전체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통제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앞서 만들어진 법을 잘 준수하면서 건강한 사회 윤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대신에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견인해야 할 사안들을 사사건건 법률 제정해서 구속하려는 것은 보편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하는 일이다. 주어진 권력과 권한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시도는 자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위험스럽고, 오만한 일이다. 윤리적 회복으로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독소 조항을 삽입한 끝없는 법의 제정으로 통제와 복종을 강제하겠다는 편견 가득한 시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국대학 전, 현직 기독교총장들은 종교의 자유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8월 18일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회장 김근수 외 회원 총장 일동 · 한국대학기독교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외 회원 총장 일동

{총장 명단} 강우정(한국성서대학교) 고세진(*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김경수(나사렛대학교) 김근수(칼빈대학교) 김선배(침례신학대학교) 김성수(*고신대학교) 김영권(대전신학대학교) 김영만(*전주비전대학교) 김용관(*부산장신대학교) 김윤희(화분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김재연(*칼빈대학교) 권용근(영남신학대학교) 노세영(*서울신학대학교) 모영기(*동원대학교) 목창균(*서울신학대학교) 문성모(*서울장신대학교) 박노준(안양대학교) 신민규(*나사렛대) 안민(고신대학교) 안주홍(서울장신대학교) 이길형(KC대학교) 이상인(성결대학교) 이은규(*안양대학교) 이정숙(*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재서(총신대학교) 임승안(*나사렛대학교) 임성택(*KC대학교) 임열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오덕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근모(*영지대학교) 정규남(광신대학교) 정상운(*성결대학교) 정인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정일웅(*총신대학교) 정효제(*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창균(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홍호(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성현(개신대학원대학교) 주대준(*선린대학교) 최해태(대신대학교) 최문자(*협성대학교) 최성규(성신대학교) 최홍식(*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최홍진(호남신학대학교) 한영훈(서울한영대학교) 허원규(부산장신대학교)현우광(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황덕형(서울신학대학교)

〈가나다 이름순 *전직총장〉

광복 75주년·건국 72주년 국민기도회

한교연, 〈차별금지법 철폐, 한국교회 화합 연합 통합〉 피켓 구호 외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이 주최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구군 기독교협의회 및 대한민국건국회, 건강한 경기도민연합, 군포시기독교연합회, 민족통일선교협회, 경기남부경찰청경목회, 진평연, 한국교회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광복 75주년·건국 72주년 국민기도회'가 지난 8월 12일(수) 오후 7시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1부 감사예배와 2부 기념식 순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감사예배에 앞서 김일평 교수(부산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위장 평등법)의 문제'를 주제로 30분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최승균 목사(경기도민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김효종 목사(한교연 상임회장)의 대표기도, 신광준 목사(민족통일선교협회 대표회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인기 목사(군기연 중경총회장)가 광복과 건국의 감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상철 목사(경기총 상임회장)가 사회의 균형과 안정 및 한반도의 평화통



일을 위해, 홍정자 목사(한교연 공동회장)가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본질 회복을 위해', 서한제 목사(한국교회법학회장)가 '사회 혼란을 조정하는 반기독교세력 퇴치를 위해', 박봉상 목사(경기남부경찰청 경목실장)가 '군경찰 복음화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다.

이어 군포제일교회 백합찬양대가 찬양을 한 후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가 '기도의 손을 올려라' (출 17:8-16, 막 9:28-29)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박용구 장로(부회계)

의 한금기도, 다윗총창단의 한금송,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권태진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하나님께 서 우리 민족에게 8.15 광복을 하라하시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상해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말하는 데 엄밀히 말해 임시정부는 일태된 날이고 대한민국이 탄생할 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 강력 저지”

기독교지도자협의회 광복절 75주년 기념예배 드리고 결의문 채택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이하 기지협)가 지난 8월 13일(목)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광복절 75주년 기념예배를 열고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기지협은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신신목 목사의 인도로 드러진 예배는 이규희 목사(예장우리 총회장)의 기도, 유경선 장로(간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가 '예수님의 눈물과 나라 사랑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발전을 이룬 한국교회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며 “매년 광복절을 즈음해 한국 6만여 교회가 애국주일일을 일제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직운동, 자살예방운동,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저출산 해소 등이 곧 애국운동”이라며 “다들 생명을 죽이는 것만 살

인이 아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 자살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도 함께 열렸다. 기지협은 교계를 넘어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을 다짐했다.

기지협은 “이 땅은 창조원리에 의해 조화를 이룰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생성되고, 번영과 발전, 창조와 생명을 이룬다”며 “창조원리에 반하고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부끄러운 것은 철저히 구별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급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발의가 종교탄압의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국회를 향해 결코 이를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8.15의 구국 희생 정신 반드시 기억해야

나사연, 민복협, 기여협, 75주년 8.15 광복절 구국기도회

나사리국민연합(대표회장 한정수 목사, 나사연), 민족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옥수복 목사, 민복협), 기독교여성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김지혜 목사, 기여협) 등 3개 단체 주최로 지난 8월 13일(목)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75주년 8.15

광복절 구국기도회를 열어, 한국교회를 향해 8.15의 숭고한 의미와 구국과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슴 깊이 되새길 것을 다짐했다.

우리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빼앗고, 우리 민족의 고귀한 얼을 짓밟은 일제 침략 36년의 잔혹한 억압의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

남게서 우리에게 하라하신 광복절이 어느덧 75주년을 맞았다.

이에 일제의 잔혹한 억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지켜냈던 선조들의 강건한 정신을 본받고, 앞으로는 갈라진 남북의 하나됨을 위한 특별한 기도회가 열렸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인도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1부 예배는 대표회장 한정수 목사의 사회로 국가안보와 일제 36년간의 만행을 생각하며 기도한 후 안종원 장로(원로장로회장)의 대표기도, 이재윤 장로의 성경봉독, 채연희 권사의 특송 후 최태해 목사(대신대학교 총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창조신학으로 한국교회 세속화 변질 막아야

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 신학협, 제19회 신학세미나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사무총장 변정운 목사/이하 예총연) 신학 신학협의회(대표회장 강진명 목사)는 지난 8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 여전도회관 2층 루이지기연관에서 제19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시대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정인찬 박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총장)는 녹 4:17-19 말씀을 본문으로 한 '새 창조신학과 미래교회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정 박사는 서두에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가고 변질화되는 등 한국교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를

둔 새 창조신학으로 교회의 터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박사는 이어 “신학의 흐름은 복음주의 신학, 오순절 신학, 에큐메니컬 신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직 말씀에 기초를 둔 복음주의의 새 창조신학으로 세속화와 변질화를 막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새 창조 새 일의 역사를 이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창결하는 오늘날 사탄의 세력들은 권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약화시키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신본주의 신앙을 통해 이를 철저히 타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 도와

기아대책, 에티오피아 내 에리트레아 난민에 코로나19 방역 물품 지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진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에티오피아 내 에리트레아 난민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물품을 지원한다고 지난 8월 19일(수) 밝혔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에리트레아는 독

재정권의 강제 징집과 경제 파탄을 피해 매월 약 5천 명의 난민들이 에티오피아로 넘어오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할 시설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아대책은 재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 125만893장 분량을 제작하고 순세정제

8천여 개를 마련해 에티오피아 북부 쉬레(Shire) 지역 4개 난민 캠프와 아파(Afar) 지역 1개 캠프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지원 사업은 기아대책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진행해 오고 있는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아대책은 2017년부터 국내 국제구호단체 중 최초로 에리트레아 여성 및 아동 난민을 위한 구호활동에 힘써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1년까지 총 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범죄 및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 난민을 위한 ▲안전쉼터 64개소 ▲여성친화적 공간 2개소 ▲캠프 내 치안센터 2개소 등 보호시설 건립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제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기독교개혁교단협, 개신교단협, 개혁신교회연합 3개 단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정섭 목사)는 지난 8월 13일(목) 여전도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개신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사단법인 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와 기입교단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제75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예배는 사단법인 세계개혁신교회연합회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대표기도, 대한예수교장로회 방총회 총회장 김문희 목사가 출애굽기 3장 4-8, 여호수아 1장 1-9 말씀을 봉독하고, 개

혁신창단의 찬양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동회 김병섭 목사의 색소폰연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사단법인 개신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는 '말씀의 민족'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땅에 임하시기 직전, 망설이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기준을 제시해주셨다. 이는 오늘날 말씀의 민족인 대한민국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해준다. 또한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으로 인한 상처 치유를 동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3개 연합단체가 종교다원주의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믿고 개혁신학 개혁신앙으로 무장하고 매진한다면 대한민국은 말씀의 민족,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성민원, 911 수색구조단에 ‘사랑의 밥차’ 지원

충북 제천 수해복구 현장에 파견, 쌀과 식료품 등도 지원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은 지난 8월 14일(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 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911 S&RT 수색구조단(Search&Rescue Team)과 협력해 사랑의 이동급식 차량을 파견하고 쌀과 식료품 지원에 나섰다.

충북 제천은 이번 폭우로 양계장 닭이 11만 마리 가까이 폐사하는 등 생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

성민원의 지원으로 911 S&RT 수색구조단은 15일 충북 제천 성내리 마을에 캠프를 마련하고 열을 가까이 머물며 병충해로 인한 전염병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계장, 가옥의 방역과 소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쓰러진 가옥을 세웠다.

911 수색구조단 고문인 김다니엘 목사는 “난생처음 겪는 호우로 아연실색한 주민이 많다”면서 “그러나 2차 피해가 없도록 방역



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계장을 복구하고 있어 주민들도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성민원 권태진 이사장은 “수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국제 구호단체인 911 수색구조단을 만나 협력할 수 있

는 길이 열려 기쁘다”며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들이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서울YMCA

제27대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취임

주님의 몸된 기관인 서울YMCA는 제27대 조규태 서울YMCA 회장 취임예배를 오는 9월 1일(토) 서울YMCA 2층 우남 이원철 홀에서 갖는다. 이사회(이사장 김인복)는 지난 6월 19일(금) 정기이사회를 열어 조규태 운영본부장을 신임 서울YMCA 회장으로 선임했다. 조규태 서울YMCA 회장은 충북 보은 출생으로 안양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노동행정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58세대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대표적 기독교 시민사회 운동인 서울YMCA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서울YMCA 내에 시민문화연구소를 설립

하여 민간운동의 역사와 이론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가운데 서울YMCA운동 중장기발전 계획 등의 성안을 주도했다.

2016년부터 운영본부장을 맡아 YMCA 범

인행정과 운영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삼성전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전자상거래, 프랜차이즈, 소비자상담 등 산업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송실대·국민대·동국대 강사,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 서울시지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정착자문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한국시민문화학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신학교 교수 하계수련회 개최

광주지방회



김양인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 성회 광주신학교(학장 최정식 목사)에서는 지난 7월 21일(화) 강진장계순복음교회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광주신학교 교수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여느 해 같으면 짐통터위로 한참 더울 날씨가지만 장마로 인하여 그다지 덥지 않은 날씨 가운데 사모들과 함께 오전 10시에 모여 간단한 담소를 나눈 뒤 첫 시간 특강으로 증경총회장 김양인 목사의 예하성 교리신조에 이어 둘째 시간에는 광주신학교 이사장



왕상열 목사가 성경적구원론을 강의하였다. 김양인 목사의 교리신조는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귀중한 강의였으며, 왕상열 목사의 성경적 구원론의 강의는 다시 한 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강의 후에는 열린 질의응답으로 교

수의 질적 지질을 함양시켰다. 오전 강의가 끝난 후에는 장계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함께 먹으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장계순복음교회 담임 한기봉 목사와 홍성만 사모의 그 열정은 모두가 땀과 깊은 섬김의 마음과 자세였다.

59차 목사 안수식, 장성미 전도사 목사안수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신병설 목사)는 지난 8월 10일(월) 오전 11시 은혜서원교회를 답입하는 장성미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조재호 목사(청대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 부회장 김용 목사(증평 새희망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지방회 서기 기호선 목사(괴산신

복음교회)의 성경봉독, 목대원 동기 일동의 특송, 한바름 목회자 사모의 오카리나 연주, 아이 지방회 증경회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가 설교했다.

윤 목사는 요 21:15-17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목회자에게 물으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목회에 사랑이 있느냐? 목회를 의무감 때문에 하지는 않느냐? 목회는 기초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의 목회화

시기를 축복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지방회 재무 김윤배 목사(중앙샘교회)의 헌금기도 후, 2부 순서 안수식에서 지방회장 신병설 목사(청주 주사랑교회)는 먼저 장성미 전도사로부터 임직서약을 받고 곧바로 장성미 전도사의 안수례를 진행했다. 안수례가 진행되는 동안 지방회 목회자들과 성도들도 함께 안수 받는 장성미 전도사를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고, 안수 후 안수위원들과의 악수례와, 지방회장 신병설 목사의 공포가 이어졌다.

안수위원들은 안수 받은 장성미 목사에게 성서를 책의하였으리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수여했다.

제3부에는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한화순복음교회)의 권면과 증경회장 오병을 목사(이멘순복음교회)의 축사, 은혜서원교회 성도들의 꽃다발 증정과 안수 받은 장성미 목사의 담사가 있었다.

이어서 작전회장 김경춘 목사(순복음후영교회)의 축도로 장성미 목사의 사랑의 목회를 소망하며 축하와 축복의 모든 시간을 마무리했다.



신학교수 367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10개교 총장 포함 36개교 참여 입장 밝혀...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전국 36개 신학대학 교수 367명의 평가다.

이에 신학대학 교수들은 이 법의 제정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신학대학 교수 367명의 참여로 결성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는 1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신학대학 교수 연대의 입장’을 발표했다.

신학교수들은 공동대표 중 1인인 이승구 교수(한신대)가 남동훈 임장문에서 먼저 “우리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발의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려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안에 반대 이유 6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해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화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있다(법안32조).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둘째,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독교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법안 3조 1항), 신학교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 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다.

셋째, 심지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법안 3조 1항 가목).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

넷째, 모든 영상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법안 3조 1항 1호). 이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 이 아닐 수 없다.

다섯째,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되도록 되어 있고(법안 1장 4조) 국가가 매 5년마다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점검해 추진하는 5개 계획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법안 6조 1항). 그러므로 이는 국가 전체를 이 법안의 발의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법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의 견해를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동성애와 관련해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학문적 논의를 금지하는, 그리하여 학문 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법안이기에 반대한다.

한편 이들은 “향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신학대학 교수 외에 기독교학교와 일반대학 교수의 참여를 권면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9월 열리는 장로교 교단 총회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일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제지역 유해발굴 현장 방문, 장병 위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7월 21일(화)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인제지역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한 분들의 유해발굴에 부대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흥천교회 박성윤 목사와 군암리교회 김중애 목사가 함께 하여 장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었으며, 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장병들에게 일상에 경험하기 어려운 귀한 경험을 통해 나라사랑의 정신을 품고 역

사의 효훈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대장은 이 골짜기까지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에 깊이 감사드리고 더욱 빈틈없는 경계근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와 박성윤 목사, 김중애 목사는 음료수와 빵, 과자, 신앙서적 등을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민족복음화 부흥의 불길 확산되는 계기 되길

“8.15광복 제75주년 감사예배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진등용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2020년 8.15광복 제 75주년 감사예배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8월 15일(토) 오전 7시 아산시 청운로 139-5에 소재한 시온감리교회(담임 김수홍 목사)에서 개최하고 해방 75

년을 맞이하여 광복의 기쁨이 우리 내적 분열과 갈등으로 고난을 당하였던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고난의 역사가 반복 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변명과 발전의 계기가 되며 민족복음화의 부흥의 불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배에 앞서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75년 전 이 나라와 민족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전하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팔복할만한 경제 선진국으로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더욱 더 하나

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부 예배는 상임회장 박귀환 목사(생명성동천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한상문 장로(아기연장로회 회장)의 대표기도, 고분 김소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 목사는 시 127:1 말씀을 본문으로 ‘광복 75주년을 맞는 자세’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공산화를 보면서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의 아래 말씀으로 평화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해야 할 것과 자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시온감리교회 담임 김수홍 목사(상임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2부 순서로 8.15 추사순서가 있었다. 상임회장 온재현 목사의 사회로 먼저 국회의원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평화통일에 헌쓰며, 일제의 탄압부터 오늘날까지 110년의 역사가 갈등과 혼란의 역사였다. 이 나라의 건국이념인 기독교 정신을 지켜나가 일본을 이기자고 하였다.

다음으로 아기연 대표회장 김병환 목사(배방중앙침례교회)는 추사에서 민족복음화로 진정한 해방을 위해 380여 교회가 연합해 하나 되어 갈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곧바로 모든 참석자가 일어나서 만세 삼창과 애국가 제창을 하였다.

3부 순서로는 기도회가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상암교회)의 인도로 진행 되었다.

이날 기도회는 1)나라와 민족과 8.15광복 75주년을 위하여 황기식 목사(상임회장), 2)민족복음화와 아산시 성서회를 위하여 이경팔 목사(상임회장), 3)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하여 조이철 목사(상임위원), 4)중국우한폐렴(신종코로나19)바이러스 소멸과 홍수재난 피해자들을 위하여 정수희 목사(재무)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광로 목사(지도위원)의 식사기도 후 시온감리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317개 대학 1,857명 교수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신앙·양심·학문·표현의 자유 명백히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전국 317개 대학 1,857명 교수 명의의 성명이 지난 8월 20일(목) 오전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들 교수들을 대표해 김원평 교수(부산대) 등이 참석했다.

이 성명에서 교수들은 “최근 성적지향(동성애), 성별정체성(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성애자 인권 단체와 진보 단체 등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했다.

이들은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동성 성행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라며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 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했다.

이어서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제 구조 그 자체”라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



들에게서 도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나아가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가치관단을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게 되면 동성애 옹호 지지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가 금지되는 동성애 전체 주의를 독재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은 “또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며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차별금지법 위반의 범법자로 만들어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무제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성전환에 관련한 완전히 박탈하는 심각한 성전환 전체주의적 독재도 초래한다”고 했다.

생명의 말씀



손 선 영 목사

· 예수교대한감리회 전 감독
· 기림교회 원로

너희도 가려느냐

(요 6 : 66-71)

을 하신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나 둘 모두 다 예수님결을 떠나가고 이제는 열두제자들만 남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물으셨다 "너희도 가려느냐?"

첫째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은 가지 없으면 나와 함께 있게 된 다라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임을 말할 수가 있다.

교리를 받아 드리는 것만도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활동하는 것만도 아니고, 의식에 참여하여 자리를 같이 하는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연구하는 것만도 아니다. 신앙은 예수님

의 삶과 피를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내어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로 믿어안아 그 분을 모시고 그 분 안에서 내가 살고 그 분은 내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이 되는 것이다.

둘째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것은 가지 없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경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

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 는 것이다.

예배는 어느 날 어느 장소를 선택하여 기도하고 설교하며 헌금을 드리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목소리 높여서 자신의 감정을 호소하며 몸부림 치는 것만도 아니다. 참다운 경배는 그 분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분을 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순응하는 것이 참다운 경배요 예배이다. 거기에는 감사가 있다. 거기에는 헌신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이 있고 희열이 있으며 감격이 있는 것이다. 감동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다.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다. 이들은 결국 진정한 주의 말씀이 임할 때는 모두다 주님을 떠나고 말 것이다.

셋째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 속에는 안 거인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 하셨다 "나는 생명이니 내 삶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싫어서 예수님 결을 다 떠나고 말았다.

영생을 얻을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인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드렸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생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들이자. 그리고 그 분과 함께하며 그 분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리라 믿는다.

동 정

한동대, 애터미(주)와 협약 체결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는 지난 8월 12일(수)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애터미(주)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대학교 장순홍 총장, 애터미(주) 박한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학금 지급 및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십 운영, 취업설명회 제공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희망나눔재단 작은교회 긴급 지원



희망나눔재단(이사장 이정의 목사)과 목회자세움네트워크(이사장 이정의 목사, 대표 이형로 목사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 목회자를 돕는 일에 다시 팔을 걷어 붙였다. 재단과 네트워크는 "의명의 한 독자가가 1억 원을 기부했고, 네트워크를 통해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美서 '한국 정부 교회 탄압 중단' 촉구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한국문제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인권운동가 수잔 솔터 디펜스포럼 회장에 따르면, 이 서명운동은 종교자유를 위한 단체 '주빌리 캠페인'과 북한자유연합 창설 멤버 중 한 명이 주도하고 있다.

예수병원-바탐방 신학교 MOU



전주 예수병원과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가 상호 인적자원 교류, 공동연구 활동,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의 교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8월 19일(수) 전주 예수병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예수병원 김철승 병원장,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신학대학원) 배경식 총장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초등학생들에게 외설적 성관계, 동성애 조장 도서를 보급하는 여성가족부, 가족해체부인가?

우리나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없는 행정조직이 하나 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여성부'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되었다.

이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기획의 종합 및 여성의 권익 증진, 청소년의 육성과 복지 및 보호,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과 조정과 지원, 그리고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제반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나다운 어린이책'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충격적이

다. 그러한 책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남녀의 성관계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외설적이며, 초등학교생들에게 조기 성애화(性愛化)를 한다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나쁜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여가부가 배포한 책들의 분석한 것을 보면, '우리가족 인권 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에서 '엄마 인권 선언'(도서출판 노란돼지)에서 '엄마 인권 선언' 가운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동성혼'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혼한 후에 아이를 돌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데, 이는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같은 책의 '아빠 인권 선언'도 비슷한 내용이며, '딸·아들 인권 선언'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

가 있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도서출판 시금치)에서도 동성끼리 어울리는 모습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담푸스)와 '하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고래가 숨 쉬는 도서관)에서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화시켜, 초등학교생들을 조기 성애화 시킨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중(異種) 간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성적 취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든지(엄마는 토끼이빨은 펠린 나)는 토끼(엄마-도서출판 키즈앤) 여성의 자위와 성관계, 피임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콘돔

을 권장하는 내용(겔스 토크-사춘기라면 정작 말해주지 않는 것들-시공사)들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여성가족부가 일선 초등학교에 배포하는 책들이 과연 지나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서'인지, 아니면 지나친 성의 문제를 노골화하여 아이들에게 조기 성애화(premature sexualization)를 만들면서 '교육적책'인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는 영문으로 'Ministry Gender Equality and Family'로 쓴다. '여성'과 '가족'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회적 성 'Gender'를 사용함으로써 여가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여가부가 하려는 것이, 어린 아이들을 바른 성교육과 인격체로 성장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선과 악의 개념을 모

호하게 하고, 교육의 기준을 하향평준화하여 인성을 타락시키면서, 오염된 세태에 맞추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따라서 여가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그리고 여성과 가족의 바른 가치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정의 해체, 도덕과 윤리의 타락, 아이들을 왜곡된 '성소수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라도 여가부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며, 배포된 문제의 책들을 모두 수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이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칠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이런 일에 국민들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한근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도향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리몬그라스오일, 캐모마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워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통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운동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작업시)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로써 마음과 몸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렌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구주소나무오일,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길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랄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이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이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등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모마일꽃오일, 사이버터, 마가데미아넛오일등

⑨ 젤뮬케어 림밤 (15ml)

인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줍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티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인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워터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워터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워터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1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0. 8. 28(금)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교단서식→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2부 작성→지방회에 제출→지방회임원회 심의→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0. 9. 03(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0. 9. 24(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0. 8. 28(금)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1. 2. 1(월)~2(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고 문
자 문 위 원
대 표 회 장
본 부 장
상 임 회 장
공 동 회 장

지 도 위 원

부 회 장

사 무 총 장

상 임 총 무

후원회 회장

후 원 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윤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장), 김황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노섭 목사
사무총장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진등용 목사, 노성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송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손 혁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정병환 목사, 김성권 목사, 광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주섭 목사, 김의중 목사, 김경환 목사, 엄태일 목사
장현원 목사, 고영기 목사, 김주섭 목사, 이재두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이기언 목사, 안덕근 목사, 유현희 목사
안흥규 목사
총무 정진학 목사
서기 최순식 목사
회계 광인숙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정수희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화 목사, 오세완 목사, 최문호 목사, 홍은식 목사, 김형준 목사, 전병학 목사,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미숙 목사
한상문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 원 계 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폐능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함)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4)호흡기, 위

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살롱나비

“이승만은 친일파” 매도(罵倒) 광복회장 광복절 기념사 논평

초대 이승만 대통령 없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다. 국부를 폄하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다.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환 박사 이하 살롱나비)이 왜 문재인 정부는 역사와 보훈의 문제를 소모적인이념논쟁으로 만들려고하는가? 이 논의는 역사학계에 맡겨야한다며 광복회장의 이념논쟁에 대해 일침을기하고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논평을발표했다.

지난 75주년 광복절은 국가가 주최한 기념행사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너무나 허탈한 기념일이 되었다. 광복회장 김원웅은 기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승만’이라고 부르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폄하(貶下)했다. 지병관에서 김원웅은 “초대 육군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에 빌붙어 독립군을 로벌하던 자가 육군참모총장이 됐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은 친일파의 나라가 됐다” “민족을 외면한 세력이 보수라고 자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도 했다. 김원웅은 작곡가 안익태를 거명하면서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國歌)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했다. MBN 인터뷰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국가를 바꾸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김원웅은 “친일 반민족 인사들이 (서울 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며 이들의 묘를 이장하게 하거나 묘지에 ‘친일 행적비’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 조전체육관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면서 광복회장 기념사를 듣고 “국민 편 기르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즉석 연설을 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는 등의 김원웅의 주장이 편향적이라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우리 정치인 가운데 이러한 올바른 국가관을 지닌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준다. 원희룡 제주 지사의 국가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살롱나비는 김원웅의 기념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김원웅의 기념사는 국부와 구국영웅을 부정하는 연설로서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제 복무 경력에 있는 일부 인사들 정부에서 일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광복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해 독도에 대한 실요적 지배를 굳힌 지도자다. 그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을 거부하고 반공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 미국 대통령에게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은 애국자이다. 미국은 이승만 제거 음모를 꾸미기도 했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비판적 진미 지도자였다.

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 등 국군 원로들 중에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됐던 경우도 있고, 그저 일본 대학 유학을 했을 뿐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6·25 때 전군을 세워 현충원에 안장된 것이다. 특히 백선엽 장군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다부동 전투에서 “내가 후퇴하면 나라 쏜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돌격하여 대우로 가는 길목을 사수하여 풍전동하의 대한민국을 공산군으로부터 지킨 자이다. 그는 당시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세를 한달 이상 막아내었고, 전세를 뒤집은 그의 공적은 미군 쪽에서 더 높이 평가를 받았다. 그가 별세하자 전현직 주한미군 수뇌부가 일제히 “진심으로 그리워할 영웅”이라고 애도한 지도자였다. 10만명에 가까운 수많은 국민들이 장례식에 그분을 추도한 것은 그분의 애국심을 안 데 기인한 것이다. 재향군인회는 8월 16일 성명에서 “일본군 출신 창군 원로들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끼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창군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2. 기념사를 직접 듣고도 아무런 언급없는 대통령은 과연 나라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가?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과정을 아울러 기념하는 날이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중앙청에서 열린 정부 수립 선포식을 주관했었다. 김 회장 발언은 정부 수립 기념일에 초대 대통령을 향해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러한 경축사를 직접 들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대통령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의의가 제기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이 정부 아래서 반일 종족주의 경축사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문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대한 언급은 주목할만하다: “우리의 국운(國運)과 직결된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분명한 국가 목표와 유호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념 편향·진영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적으로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 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라는 통찰있는 지적은 대통령이 귀담아 들어야할 국가 원로의 충언이다.

3. 원희룡 제주지사의 비판적 언급은 나라의 계보를 지키는 것이었다.

원희룡 지사는 국부 이승만, 구국의 영웅 백선엽, 애국가 작가 안익태 등을 민족 반역자로 폄하한 김원웅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국가 행사에서 김원웅씨의 정신적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를 다시 들을 이유가 없다”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이어받아 국일(克己)로 나아가자”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의 연설은 광복절에 우리나라가 가야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원희룡은 김원웅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 입대했으나, 어떤 작품을 남겼느냐 등으로 친일 여부를 가르는 데 대해 “폭력적인 역사관이자 인간에 대한 오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일파 재산 몰수와 같은 보훈 작업은 하면서도 균형적·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보았다. 그의 연설은 올바른 분별이요,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있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4.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고, 애국자였다. 그는 국부로 존경받을 수 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일제 식민통치시절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고 임시정부를 세웠으며 1948년 제헌헌법을 만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한 국부 대통령이다. 그는 6·25전쟁 때 미국이 일본군을 한반도에 투입하려 하자 “일본군이 참전하면 일본군부터 먼저 쳐부수겠다”고 할 정도로 반일 정신으로 가득찼다. 그는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기습 선포해 독도의 실요적 지배를 굳혔다. 일본 우익 진영 머릿속에 이승만은 상종 못 할 반일(反日) 인사로 각인돼 있다. 이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제 때 근무했던 관료들을 끌어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든다. 이는 허허벌판에서 국가 조직을 일으켜야 했던 건국 현실을 도외시한 철부지 운동 논리다. 일제가 물러간 지리에 각분야 전문가가 없는 처지에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일본식 교육을 받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자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불가피한 당시의 현실을 전혀 무시하는 것으로 비현실적인 편향논리다. 이에 대해 원희룡이 “나라 잃은 백성에게 왜 죄를 묻는가”라고 대응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실패를 돌아쳐보는 발전적인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올바른 해석이다.

5.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고자하는 정치인들은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려는가?

김원웅은 “서울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는 곳에, 독립군 묘비에 앉았었던 자가 묻혀 있다”며 전직 대통령 등의 파묘(破墓·무덤을 파냄)를 거론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국부와 구국의 영웅을 폄하한 발언은 공화당 당료로 시적해 40대 초반까지 전두환 민정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생계” 한마디로 면죄부를 준다. 그는 “박근

해보다 독립운동가 가운데서 지란 김정은이 낫다”라고 6.25를 일으켜 3백만 동포의 목숨을 빼앗고 2천만 북한동포를 노예로 부리는 김일성 왕조를 옹호하면서 국부를 친일파, 구국의 영웅을 민족 반역자를 폄하하는 것은 자기당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언행은 광복회를 욕보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통합당은 “정치 보복이자 역사 부정”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은 자기들이 역사의 삼판자인 양 독단적인 친일 관점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역사 이념을 앞세운 독재나 다름없다. 역사에 대한 겸허한 자세로 공과(功過)를 함께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의 길로 가야한다.

6. 광복회는 왜 나라를 통합하려하지 않고 국론 분열로 이끌고가는가?

참 지도자는 반일 프레임이 아니라 국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야한다. 광복회는 설립목적이 독립선열의 희생정신 계승과 민족정기 선양이다. 그 활동이 민족혼을 불어넣어 5000만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야한다. 김원웅이 회장을 맡은 작년 6월 이후 광복회는 집권 세력의 편향된 이념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광복회는 최근 별세한 6·25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저지 하겠다며 운구 차량을 가로막아 향관의 분노를 샀다. 김원웅은 6·25남침 때 공을 세워 김일성 훈장을 받은 김원봉의 서훈을 주장하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 모의로 투옥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찬양했다. 이런 언행이 광복회 정권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내부 상벌위에 제소했다. 김원웅의 안익태 비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부정했다”며 김원웅은 “죽자 사퇴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은의 의원은 “반일 친북 반미 친분의 김원웅 회장은 파직(罷職)해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김원웅의 ‘친일 청산’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가려면 응서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했다. 양치익은 자들은 이런 사고를 하는 자가 광복회장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한다. 광복절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광복회장은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7. 75주년 광복절의 진정한 의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국론(미래지향적)인 일본관계이 통합하여 나가는 것이다.

왜 문재인 정부는 역사와 보훈의 문제를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이 논의는 역사학계에 맡겨야 한다. 우파가 좌파를 ‘빨갱이’로, 좌파가 우파를 ‘토착애국’로 단죄하는 세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우를 통합하여 나라를 한편에 따라 균형을 잡아 벌치해 통치해주시기 바란다.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를 세계 10위국으로 만든 우리 조상들을 모조리 다 폄하하여 내리면 이 땅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오늘의 역사를 만든 그분들도 존경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데 동참한 분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아직도 일본은 자유국가이면서도 과거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폐쇄적 분노적 대일관에 갇혀있어서는 안된다. 먼저 마음을 열고 일본을 미래지향적으로 응서하고 화해적으로 대해야 한다. 일제 시대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 시대에 열심히 산 어려운 경험을 뚫고 사범학교, 군관학교 입학, 일본 유학 그리고 학교, 군대, 기업, 관청에서 복무 등) 우리 선조들을 폄하하기 보다는 저들이 뒤아놓은 기초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선조들을 존중하며 이들의 미흡한 점을 덮어주고, 좋은 점을 부각하여 훌륭한 선조들을 많이 두는 열려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2020년 8월 24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2020년 8월 24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mok2677@kakao.com

신간 안내

말씀과 함께 읽는 천로역정



『천로역정』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는 영적 안내서!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다. 1678년에 출간된 이 책이 300년이 넘도록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온 이유는 무엇일까? 『천로역정』은 장차 멸망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천성)를 향해 나아가는 한 순례자의 여정을 묘사한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신앙 소설이 아니다. 조금만 유심히 읽어 보면 이 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인용한다. 성경이 『천로역정』의 중심이다. 성경으로 『천로역정』을 쓴 까닭에 이 책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보이고 복음이 쉽게 이해된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읽고 감명을 받은 것이다.

저자 : 하정완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 발행일 : 2020-08-17 | (148*210)mm 304p | 판매가 : 17,000원

일상의 분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이라는 이 책의 부제처럼 저자는 큰일이 닥쳤을 때만 혹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에만 분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분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고, 화려하고 소수하고, 쫓기고 초라하고, 세상적이고 교회적인 구분을 넘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아무리 바쁘더라도, 또한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조차 건너뛰지 말고, 세심히 분별할 것을 주문한다. 이 책은 또한 일상에서의 분별뿐만 아니라 오늘 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동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분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리는 시대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 : 박준형 | 출판사 : 대한기독교서회 | 발행일 : 2020-08-20 | 신국판 304p | 판매가 : 14,000원

죽음에 관하여

팀 켈러의 인생 베이직 시리즈 / (On Death)



언젠가 맞게 될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법을 기술했다. 죽음을 어떻게든 부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경에 주어진 믿음의 자원으로 죽음에 직면하도록 가르친다. 가장 깊은 슬픔을 막아주는 이 인생의 고비를 은혜와 인내와 기쁨으로 접근하고 경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서 절망과 부정의 대안을 찾아내는 팀 켈러에게서 지혜와 공감이 넘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생생관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돕는 강력한 책이다. 특히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몸이 아픈 이들이나 언젠가 닥쳐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이 일주일 동안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관련 성경 말씀을 소개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깊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역자 : 팀 켈러/윤종석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 발행일 : 2020-08-19 | (112*180)mm 119p | 판매가 : 7,000원

하나님의 속도

나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



《하나님의 속도》는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우리에게 느리지만 가장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안내한다. 저자는 반야오 이후 회심을 통해 관점과 행동을 바꾸어 날마다 하나님과 발맞추어 걷는 삶을 선택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경청하고 중립에 도달하는 4단계를 마칠 때까지 느린 속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학, 취업, 결혼, 사업, 수많은 결정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이들에게 강력히 추천한다. 또한 배우자, 자녀, 지도자, 사역, 기부 등 삶의 밀접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저자/역자 : 테리 루퍼, 크리스 베이스/이혜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0-08-20 | (140*215)mm 296p | 판매가 : 15,000원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

“예배 금지 즉각 철회하라”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에서 '정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며; 행정성 이국난 정부의 교회 모임 예배 금지 즉각 철회하라' 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코로나를 무기로, 정치적인 인기 회복의 기회로 이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각성하라!

문재인 정부가 또 다시 교회만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불교와 전교회는 예배가 가능하고 교회만 안 된다고 한다.

더구나 지난 8월 15일 문재인토진 광화문집회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 교회를 언급한 것은 누가 봐도 정권 퇴진 집회 주최 측에 재갈 물리려 아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초 조국 사태로 인기가 급락하자 코로나19 정국을 이용해 총선을 승리하더니 이제는 또 다시 부동산 민심과 추미에 장관의 검찰사법 농단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다시금 코로나를 반대 측을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은 6만 교회 20만 성직자와 1천만성도가 존재하는 한국 1위의 메이저 종교이다. 현 정권 퇴진운동을 한 일부 교회와 단체를 빌미로 전 교회를 압박하고 탄압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은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에만 예배를 못하도록 한 것은 종교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무시한 처사이고 기독교 탄압으로 간주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다.

모든 성당과 사찰은 관할교 교회만 안 된다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위배되고 문재인 퇴진운동을 주도한 일부

기독교계를 빌미로 교회를 탄압하려는 흉계로 강력히 정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전국교회에 촉구한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중국처럼 국가가 코로나를 빌미로 마음껏 기독교를 통제하는 사실상의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현 정권의 반기독교적인 행태에 분노를 표하며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잘 알려진대로 문 정권을 조사하는 검찰들을 다 숙청하고(헌법으로 보니까)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을 승진시키는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을 한 추미에 장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자 또 다시 코로나를 무기로 인기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기독교가 그렇게 만만하가? 우리는 다음 대선과 4년 후 총선에서 이를 목인한 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건강을 조급이라도 생각한다면 먼저 우한에서 들어오는 중국인부터 막는 것이 우선 순위일 것이다.

또한 3일간 60만명이 모였다는 해운대 해수욕장, 매일 새벽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전국의 수심만 개식당은 팬참고 교회는 영업정자에 해당하는 예배를 중지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의식이야말로 현 정부의 기독교 말살과 탄압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 6만 교회와 20만 성직자 1천만 기독교인들은 문재인 정권의 기독교 탄압에 맞서 정권 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며 2년 후 대선과 4년 후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CCA) pupcake@naver.com

생존 시 신장·간 기증자 표세철 목사

‘600번째 헌혈 기념식’ 치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하나님께서 600번째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심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8월 13일(목) 오후 3시 신촌 한혈센터에서 생명 나눔 실천가로 불리는 표세철 목사(68세, 남, 중앙교회 담임목사)의 600회 헌혈 기념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1978년 고등학교 1학년 당시 한혈버스와의 우연한 첫 만남으로 헌혈을 시작한 그는 1991년에 신장 하나를 타인에게 기증하고 2002년에는 간의 일부를 기증한 생존 시 장기기증자이기도 하다.

헌혈 가능 연령인 69세까지 800회 헌혈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표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려면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이라며 밝은 미소와 함께 600번째 헌혈 소회를 밝혔다.

1988년 표 목사는 결핵성 늑막염으로 병원 신세를 지며 장기기증은커녕 건강 회복조차 힘든 상태였다. 그는 투병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고 기적적으로 3년이 채 안 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긴 투병생활을 통해 한 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건강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은 표 목사는 이후 1991년 본부 박진택 이사장의 국내 최초 신장 기증 기사를 접하고 생존 시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



심했다.

1991년 당시 표 목사는 한 여고생에게 자신의 신장 하나를 기증했고, 그 여고생의 어머니가 딸이 건강을 회복한 것에 감사하며 또 다른 환자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국내 최초 릴레이 신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신장 기증 11년 뒤, 표 목사는 건강이 허락할 때 또 한 번 생명을 나누고자 간의 일부를 기증해 생존 시 신장·간 기증자가 되었다.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아름다운 결정이었다.

‘CTS기독교TV 여름성경학교’ 방영

다음세대를 위한 최고의 선물

CTS기독교TV는 8월 둘째 주(8.10~15)를 '다음 세대 특별주간'으로 편성, 자녀들을 위한 다채로운 기독교 영상콘텐츠와 믿음의 양육을 책임질 부모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TV 여름성경학교'를 방영했다.

CTS는 “코로나19로 여름성경학교 개최가 어렵거나, 개척교회에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여름성경학교가 한국교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다음세대의 신앙이 계속 부흥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CTS TV 여름성경학교'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먼저 다음 세대 프로그램은 △큐티엔의 어린이 큐티 시간 '큐티인과 날마다 어큐'를 시작으로 △3D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 △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란 주제로 '히즈쇼와 함께하는 TV 여름성경학교'를 방송했다.

또한 △TV여름성경학교 주제찬양 율동영상 챌린지 이벤트와 △방송 중 몰밭 성경 퀴즈를 풀어보며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여름성경학교로 방송을 기획했다.

이어 △비대면 화상연결을 통해 카이스트 원동연



박사가 진행하는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 △팻머스문화선교단에서 제작한 어린이 웹드라마 '엠클론스'와 '팻머스 에코클럽'도 방영했다.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위한 '이기복 교수의 부모특강' 9강을 방영했으며 △폴링닷컴은 다음 세대 특집으로 자녀들을 위

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밖에도 △큐티 가족뮤지컬 '갈멜:이함과 이세벨'과 △특선영화 '일사각오'가 방영됐으며, △'7000마일과'과 △'내가매일기쁘게' △특집 다큐 '교육이 희망이다'가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들을 위해 특별 편성됐다.

굿네이버스, 2020 여름 희망나눔학교 열려

전국 55개 초등학교 6백 명 아동 대상으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BMW 코리아 미래재단(이사장 한상윤)과 함께 8월 3일부터 2주간 전국 55개 초등학교, 6백여 명 아동을 대상으로 2020년 여름 희망나눔학교를 진행한다.

올해 희망나눔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 속에서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방학 중 균형 있는 식사 지원을 위해 개별식 형태

의 도시락과 보조식을 지원하며, 연령별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는 권리 보장에 중점을 뒀다.

특히, 놀이 프로그램 '신나는 희망나눔학교 놀이'는 아동이 주체가 되어 직접 놀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일상'이라는 주제

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속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누렸던 권리의 소중함을 표현해보는 공모전과 실내 문화 체험, 지역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진로체험 '미래드림'도 함께 진행했다.

전국 각 사업장에서는 지역 보건소 및 병원과 연계하여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예방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방역을 지원했다.

“고통 속 레바논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국제월드비전, 레바논 긴급구호사업 진행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은 지난 8월 6일,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레바논 베이루트 지역에 5백만불 규모의 긴급구호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월드비전은 재난대응단계인 카테고리2(국제월드비전의 재난대응단계 중 두 번째로 심각한 단계)를 선포하고 약 12만 명의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실시하고자 계획 중이다.

한국월드비전은 초기긴급구호자금으로 5만 불을 우선 지원한다. 이번 사고로 집을 잃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또는 지자체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식량과 생활용품 및 위생용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 대피소를 추가로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보수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또 이번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레바논 월드비전 회장 한스 베데르스키는 “월드비전은 그 동안 지원해 왔던 시리아 난민주 주민들과 경제위기와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가정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레바논 내전의 발발 시점인 1975년부터 활동해 왔으며 난민뿐만 아니라 수용국인 레바논 국민들을 위해 긴급구호, 개발사업과 옹호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한국월드비전은 2018년부터 아가와 베카 지역에서 노동에 내몰린 시리아 난민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양질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노동 피해 아동의 건강장 성장을 위해 보호자 역량강화 교육과 영·유아 아동보호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코로나시대에 교회 부흥을 원하는가?

지난 8월 17일(월)~18일(화) 가족세트전도 집회를 가졌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워낙 많은 전도방법을 접목해 보았기에 ‘할까? 말까?’의 기로에서 망설임도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분야가 단 한 곳에서 대안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셨다.

지금의 시점에서 전도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이 조금의 이튼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짧은 글이 전도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위축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다.

‘무기의 특징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방어를 할 줄 모른다. 오직 공격만 할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방어를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마귀를 향해 공격해 오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구태어 방어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그에 반해 우리는 마치 방어가 최대의 무기인양 그동안 마귀의 공격에 방어만 해 오다가 참패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부인할 수 없는 전도의 현주소이다.

전도는 영적전쟁이다. 전쟁에서 무기는 필수적이다. 금번에 정착한 신부기인 가족세트전도는 마귀의 전술과 비슷한 점이 있다. 방어는 없다. 기선제압을 위해 인정사정없이 공격만 할 뿐이다. 가족세트전도의 강력한 무기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영점기도’가 핵심이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는 마땅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가족세트전도는 영적인 것이다. 나는 전도현장에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다. 집회가 끝나고 박영수 목사는 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가 한 것 그대로만 하면 목사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전쟁에서 패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전도자인 내가 죽으면 순교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이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음날 시모와 함께 전도현장에 나가서 직접 도전에 보았다. 아직 숙달이 안되어 많이 서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점기도를 따라 하고 연락처를 다 받았다. 이 모든게 1분 안에 이루어졌다.

우리교회도 최근까지도 꾸준히 해 왔던 전도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었고 교회에 정착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틈과 연락처 하나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 선 자세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인생 상담을 하듯 다 들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틈도 못 물어보고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가족세트전도는 영점기도부터 시키고, 이틈과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부터 받고 시작한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한 곳에 우두커니 서서 전도대상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는 전도이기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사는 목회자이기 전에 전도자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전도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막 1:38). 교회 부흥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가족세트전도를 추천한다.

다누리교회 김진영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1,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코로나19 시대 교회 내 장의자·식당에 필수”

스마트 향균 필름...누구나 쉽게 부착·설치 가능한 향균 필름, 향균 칸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향균 제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주)스마트가 향균 필름인 'Shield24' (일드24)를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Shield24' (일드24)는 이온 및 금속 이온을 이용하여 제조된 점착식 향균 필름과 향균 칸막이로 나뉘어진다. 교회 내 장의자 및 식당 등 필요한 시설물에 교인들이 간편하게 설치 가능한 향균 제품으로 코로나19의 2차 전파 예방 및 확산 방지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제품인 향균 필름은 부착 시 점착면에 남는 공기 방울(포)을 누구나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에어프리트(트, 엠보) 기능이 있어 부착이 매우 편리하며, 투명도를 높인 투명 필름 향균 제품으로 피착면 고유의 색상을 잘 보존해준다.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나노 크기의 무기질(은, 구리, 아연) 금속 이온을 이용하여 안전하며, 향균, 항곰팡이, 유해 세균 등의 증식 예방과 확산을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또 원료와 향균 약제를 함께 교반하는 마스터배치 생산 방식으로 부착 필름의 향균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무엇보다 'Shield24' (일드24)의 가장 큰 장점으로 뛰어난 향균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 FTI 연구원에서 'Shield24' (일드24)의 향균 능력 측정을 위해 시험균액(포도상구균, 대장균)을 (35±1)°C, 90% RH에서 24시간 배양 후 균수를 측정한 결과, '일드24'의 포도상구균 향균 활성치와 대장균 향균 활성치는 각각 46(99.99%)과 61(99.999%)을 기록해 향균 활성 기준치인 20(99%)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DA, EU EFSA, EPA, FIFRA, NSF 표준 1 등 미국, 유럽 등 국제기관에서 실시한 급성 경구 독성시험, 피부 자극성시험, 변이원성시험, 피부 자극성시험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세계적 인증기관 SGS가 '물질사용 승인'을 받은 향균 약제로 생산된 'Shield24' (일드24) 최종 제품에 대해 실시한 7대 유해 물질 포함 테스트 실험에서 전체 미검출판정을 받아 사용물질 적합성과 안전성이 입증됐다.



▲ 'Shield24' (일드24) 향균 칸막이가 설치된 중소기업연수원 식당. ©(주)스마트 제공

'Shield24' (일드24) 제품은 오는 12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코엑스 전시장 3층 C홀에서 개최되는 'COEX 우수급식·외식산업전시회'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주)스마트 측은 “코엑스 전시회에 참가해 탁월한 향균력, 안정성, 부착 기능성 등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브랜드 제품 향균 필름 'Shield24'와 향균 칸막이 'Shield24' 2가지 종류의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균 필름 'Shield24'는 누구나 쉽게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착식 향균 필름으로 교회 공간에서 지주이용하는 교구(당대장, 장의자, 식탁, 책상, 테이블)와 직접 접촉하는 마이트, 분, 계단, TV, 휴대폰 등에 붙여 사용한다. 향균 칸막이 'Shield24'는 식당에서 비말 방지방역을 위해 식탁위에 걸쳐 사용하여 사용하며 다중이용 장소에서 비말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가 필수적인 시대에 향균과 비말방지 효과를 동시에 갖춘 기능성 제품이다.

(주)스마트 측은 “'Shield24' 향균 제품은 설치 후 24시간 동안 향균, 항곰팡이, 유해 세균 등의 증식을 예방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여 확산을 막을 수 있어 교회 방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Shield24' (일드24)를 개발한 (주)스마트는 전용특허 개발기술 DOT(점), EMBO(엠보) 점착을 이용해 향균용, 광학용, 미디어용 기능성 필름을 전문으로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2013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일부 지분을 참여하고 연세대학교 공학원에서 창업하였으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다.

2019년에는 중소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됐으며, 2020년 기술·경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아 현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입주해 있다.

또 정부기관 R&D 정책지원사업에 성공적으로 수행, 국내특허 6개, 해외특허 1개, 유럽·일본 해외 상표, 서비스표 1건, 실용신안 2건이 등록돼 있다.

청년과학으로 향균 안전을 위해 중무장한 향균 필름 가격은 1m 당 15,000원이며 3m 장의자 4-5인 기준 45,000원(시공인건비, 부가세별도)이다. 향균 칸막이는 50cm*60cm 기준 장당 30,000원이다. 문의 02-6354-0110



▲ 'Shield24' (일드24) 향균 필름이 부착된 교회 장의자. ©(주)스마트 제공

제6회 2020 원로목회자 산타 봉사

소외계층에 사랑의 선물 및 마스크 나눠줘

조절정의 여름 더위와 장마, 코로나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름산타가 찾아왔다.

(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신진목 목사)과 (사)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가 공동주최하는 '원로목회자 여름산타'가 올해에도 등장한 것이다.

지난 8월 5일(수) 오전 10시 종로5가 주변 도로에서 원로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 55명이 참여하여 사랑의 선물(생수 및 다과, 전도지, 소책자 등)과 마스크 5만 5천장을 나누어 주었다.

이날 산타모자와 빨간색 앞치마를 두르고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사랑의 행사와 함께 인근 소외계층과 양로원 등에도 같은 사랑을 전달했다. 이번에 6번째로 치르는 행사로서 오직 이웃을 위한 원로목회자들의 정성과 기도로써 주님의 사랑이었다.

신진목 목사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은 어느 한 날의 결심과 행동이 아니라 만 바쁜 일상에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항상

마음에 담으려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장마와 폭염에 지친 이들에게 잠시 사랑이라는 폭설로 코로나를 이기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대회장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 여름이 되면 종로에 산타가 등장하여 선물을 나누어 준다는 소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진정한 사랑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독교원로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와 사회에 귀감이 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향상 평생목회의 현장에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원로목회자들의 손길이 이번에도 종로5가의 출근길을 사랑으로 가득한 봉사활동 행사가 되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의교회 권사

좁은 문

학창시절 읽었던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 그때는 정말 몰랐지...

청춘의 시절 지난 날 내 영혼 그 주인을 찾기 시작
했고

헤매며 찾아가 멈춘 곳은 허름하고 작은 좁은 문
앞이었네

두렵고 떨렸던 그 좁은 문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섰던 그 좁은 문...

아~~~~~

생명수가 넘쳐나는 것을 나는 보았네

끝이 없는 평안이 그곳에 머물고...

넓고 깊은 사랑이 쏟아지는 것을 나는 보았네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킨 능력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신 능력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끄신 능력이...

그 좁은 문안에 비밀로 숨겨져 있었네

숨겨진 비밀들을 보으신 주와 함께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천국을 맛보네

보이지 않던 그 능력이 내 속에 있기에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가고 있네

세상에 부는 바람은 내 피부를 자극하지만

내 영혼의 잔잔함을 건드리지 못하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불드시고

나를 품고 계심이 그 이유라네...

마태복음 7:13 말씀을 묵상하다 거듭난 때의 감격을 적다.

한기총 비대위, 제천 금성면서 수해복구 적극적 활동

한기총 비대위(위원장 엄기호 목사)가 충북 제천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8월 14일(금) '한기총 비대위 재난구복 911 SRT 수색구조단'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엄기호 목사는 "코로나19와 54일이라는 역대급 긴장마 등 재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돕는 것이 개신교계 연합기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다"며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고 말했다.

한기총비대위는 그간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을 받았으며 현재 본안 소송 중에 있다.

수해를 당한 한 주민은 "코로나로 인해 봉사자들이 너무도 부족한 실정인데 한기총에서 나와 도와줘서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 속히 원상 복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현재 제천 금성면 소재 16개 리의 이장들과 연락하며 성내리 주차장에 캠프를 설치하고 수해복구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는 "전광훈 목사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며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도 아니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더는 개신교의 이름으로 사회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한기총이 본연의 역할을 감

당하는 연합기구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애쓰고 있다"며 "현재 한기총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에 있지만 여전히 전광훈 목사를 따르는 일부 관계자들이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금번 8.15 광화문집회 후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사의를 표한 상황이어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대위는 수해 봉사를 위해 메인캠프 4~50명, 숙소캠프 2~30명, 비상응급차량 1대, 방역차량 1대, 방역분무기 3대, 이동운송차량 3대, 무전팀 20대, 삼 20개, 전기시설팀, 상황관리팀, 코로나19 차량 방역팀, 개인 방역팀, 시설복구팀, 식사봉사팀 등을 현장에 운영 중에 있다.

사설

대한민국의 평화는 북핵 포기로부터

공직자는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 공감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그런 공직자는 퇴출되어야 한다. 국민을 괴롭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먹을 것이 없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결국 그리는 기요틴(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 지역에 가서 자기를 꺼리 깨끗한 옷을 입고 사진이나 찍는 것은 공감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태도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배우게 되듯이, 생각은 짧고 행동은 경박했고, 너무나도 쉽게 말했음을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된다. 대포발언을 비롯 족보 없는 UN사령부 운운하고 배도 툭툭 치고 엉덩이도 두드리고 이런 게 무슨 잘못이냐며 상식이하의 발언을 툭툭 내뱉는다. 아무런 공감능력 없기 때문이다.

수해를 당한 북한을 돕겠다고 통일부가 나서자 김정은이 거절했는데도 여전히 돕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45%, 그냥 유지가 41%로 나타났다. 무엇이 문제일까? 공감능력 부족이다. 국민이 무얼 바라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화학무기 위협까지 더욱 심각해지는 가운데 오히려 정부 당국자들이 한·미 안보 협력의 고리를 약화시키려 드는 모습이 더 노골화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워킹그룹과 관련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해리스 대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반박하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그런 주장을 비판했다.

최근 발표된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60개의 핵폭탄에 2000~5000에 달하는 20여 종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핵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협상이 잘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군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북핵은 우리 대한민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정부는 북한이 훈련에 대하여 어떤 불만을 말할까 전전긍긍하고 큰 항의가 없으니 다행이라면서 안도하고 있다. 제자 강조하지만 북한 핵의 포기 없이는 대한민국의 평화는 없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렘 29:12)

친일 인사로 분류되면, 무조건 파묘해야 하나

지난 2003년부터 2009년 사이에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서 선정된 총 1,005명 가운데 현재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12명을 거명하고 있다. 그 분들은 누구인가? 불과 한 달 전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백선엽 장군을 비롯하여, 일제 시대 장교로 복무한 분들이며, 민간인 출신으로는 교육부장관을 지낸 백낙준 선생 등이다.

이런 입법과 공청회가 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연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가? 우선은, 우리 민족이 큰 위기를 당하여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과거사와 그에 못지않게 나라를 살리는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파괴(破壞)를 주장하는 것은 또 다시 국론을 분열시킬 것이 분명하다. 지금의 잣대로 역사 속에서 나름대로 고

통스럽게, 그리고 치열하게 사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 내모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도 그렇고, 그 분들에

게도 분명히 공(功)이 큼에도 불구하고, 과(過)만 부각시켜 이것만을 책임지라는 압박은 역사적 인물들을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편견이 아닌가?

물론 애국자와 친일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우리는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달려, 서로가 미워하고 지탄하고 매도하고 쫓아낸 진영논리를 나누어 다루는 일에 매달릴 것인가?

더군다나 70~100년 전의 일들을 현재의 정치 논리로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시대가 지나간 뒤에도 옳았다고 정당할 수 있을까?

이제라도 정치권에서는 지나간 역사를 볼모로, 혹은 돌아가신 과거의 인물을 대상으로 '혐오의 정치'와 '분열의 선동'을 멈추고,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어 빛나는 미래를 열아가는 일에 앞장 서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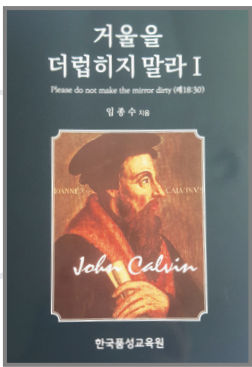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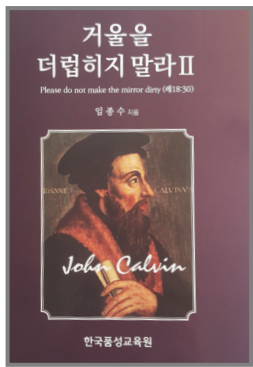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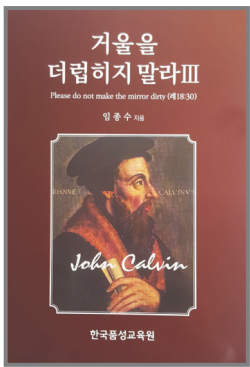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종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 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